

참고 자료

---

#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2021. 4.

# 목 차

---

1. 조사 개요.....	1
2. 조사 결과 .....	1
1) 장애 인구.....	1
2) 일반 특성.....	2
3) 건강 특성.....	5
4) 사회적 특성.....	8
5) 일상 생활 및 돌봄 특성.....	12
6) 경제적 특성.....	14
7) 복지서비스 수요.....	16
8) 코로나-19.....	19

---

# I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 1

#### 조사 개요

- 조사는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짐.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2007년 법 개정 이후 매 3년마다 실시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되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2020. 10월 ~ 2021. 2월까지 실시
  - 본 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 있음
    - ※ 최종보고서는 '21.하반기에 공개 예정

### 2

#### 조사 결과<sup>1)</sup>

##### ① 장애 인구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로 조사된 장애인은 7,025명으로 등록장애인 262.2만 명을 추정함

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2021. 3. 말 기준 자료임

【 장애인 추정 및 등록장애인 현황 】

(단위: 명)

구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장애인 추정	-	2,683,477	2,726,910	2,668,411	-
등록장애인	2,137,226	2,611,126	2,646,064	2,580,340	2,622,950

주 : 1) 2008, 2020년 및 2011, 2014, 2017년 조사 방식이 상이함  
 2) 2020년 등록장애인: 2020. 5. 말 기준

② 일반 특성

- 연령별 장애인 분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49.9%로 2017년 46.6%에 비해 3.3% 포인트 증가함.
-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따라 장애인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여줌.
- 만 75세 이상 초고령 장애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75세 미만 장애인에 비해 비중이 커짐

※ 2019년 기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15.1%, 781만 명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연령 분포 】

(단위: %)

구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만 0-17세	3.9	3.5	2.7	3.3	3.0
만 18-29세	4.0	4.2	4.1	4.6	4.2
만 30-39세	7.4	7.2	6.7	4.8	4.8
만 40-49세	16.7	14.2	12.5	10.4	9.5
만 50-64세	32.0	32.1	30.7	30.3	28.7
만 65세 이상	36.1	38.8	43.3	46.6	49.9
만 65-74세	25.6	23.8	23.5	23.5	22.0
만 75세 이상	10.5	15.0	19.8	23.1	2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장애인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가구에서 장애노인의 비중이 커짐

- 장애인 중 1인 가구는 27.2%로 2017년(26.4%) 대비 0.8%p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
- 장애인 1인 가구에서 노인 비중은 61.9%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수 616만 가구 (30.3%,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 1인 가구 비율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1인 가구 (가구 수 추정)	17.4%	24.3%	26.4%	27.2% (71.3만명)
(1인 가구 중 노인 비율)	(56.5%)	(59.6%)	(59.3%)	(61.9%)

□ 25세 이상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 경향을 보이고, 아울러 무학 비율도 감소함

-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대학 이상 학력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의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함

【 교육 정도 】

(단위: %)

구분	전체				65세 미만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무학	12.3	12.0	10.9	9.2	4.0	3.8	2.5	2.3
초등학교	33.0	29.4	27.5	28.4	24.9	19.3	15.6	11.6
중학교	18.4	16.0	16.8	18.1	21.2	16.1	16.6	17.2
고등학교	24.5	27.2	29.6	29.9	33.6	38.5	42.2	45.0
대학 이상 <sup>1)</sup>	11.8	15.3	15.2	14.4	16.3	22.3	23.1	2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25세 이상 기준

1) 대학이상은 3년제 이하 대학~대학원 모두 포함.

□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유배우 비율이 51.3%로 나타남

○ 그 외 사별 20.8%, 미혼 17.4%, 이혼 9.7%, 별거 0.7%의 순으로 나타남

【 결혼 상태 】

(단위: %)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남자	여자	전체									
미혼	16.9	8.8	13.5	19.2	10.1	15.4	18.1	11.5	15.3	21.8	11.5	17.4
유배우	68.0	44.7	58.1	63.7	42.5	54.7	65.0	42.5	55.3	60.4	39.1	51.3
사별	5.0	38.2	19.1	5.6	38.2	19.5	5.3	36.6	18.7	6.6	39.9	20.8
이혼	8.8	7.2	8.1	9.3	8.0	8.7	9.9	7.9	9.0	10.5	8.7	9.7
별거	1.3	1.1	1.2	2.0	1.0	1.6	1.6	1.5	1.6	0.7	0.7	0.7
기타(미혼모/부)	0.1	-	0.0	0.1	0.1	0.1	0.0	0.1	0.1	0.0	0.2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만 18세 이상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p 증가한 수준임

○ 전체 인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유형별 수급 】

(단위: %)

구분	2017년도	2020년도
생계급여	15.0	19.0
의료급여	16.2	25.8
주거급여	14.4	14.8
교육급여	1.4	1.8

주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2) 제1차 의료급여기본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③ 건강 특성

- 장애인의 14.0%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생각하고 48.7%는 ‘나쁘다’고 생각하여 모두 2017년에 비해 다소 감소함
- 전체 인구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5.6%임

#### 【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인지율) 】

(단위: %)

		장애인		전체 인구 <sup>2)</sup>
		2017년	2020년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4.9	14.0	32.4
	보통	33.8	37.3	52.0
	나쁨	51.3	48.7	15.6
계		100.0	100.0	100.0

주: 1) 만19세 이상

2) 2019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우울감 경험률은 18.2%이며, 자살 생각률은 11.1%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우울감 경험율(10.5%)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특히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5%, 자살 생각률은 11.5%로 높은 수준임.

#### 【 우울감 경험, 자살생각 】

(단위: %)

	2017년	전체	2020년		전체 인구 <sup>3)</sup>
			만19~64세	만65세 이상	
우울감 경험	18.6	18.2	17.9	18.5	10.5
자살 생각	14.3	11.1	10.8	11.5	-

주: 1) 만19세 이상 기준

2) 2019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로 전체 인구 (28.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 인지율 (만 19세 이상)】

(단위: %)

구분	장애인			전체 인구 <sup>3)</sup>
	전체	연령별		
		19-64세	65세 이상	
(대단히 많이 - 많이 느끼는 편임)	33.7	36.7	30.8	28.6
스트레스 (조금 느끼는 편임)	52.1	51.5	52.6	57.3
(거의 느끼지 않음)	14.2	11.8	16.6	14.1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1) 만19세 이상

2) 평소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4점 척도 (대단히 많이 느낌-많이 느끼는 편-조금 느끼는 편-거의 느끼지 않음)

3) 2019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은 큰 폭의 증가를 보여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하는 경우는 76.3%로 2017년과 비교하여 낮아짐

【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의 정기적, 지속적 진료 여부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지속적 진료 받음	72.4	78.3	82.3	76.3
지속적 진료 받고 있지 않음	27.6	21.7	17.7	23.7
계	100.0	100.0	100.0	100.0

○ 장애인이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은 32.4%로 2017년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임

-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6.6%, 2019 국민건강통계)과 비교할 때 약 5배 높음

- 장애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의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29.8%), 경제적 이유(20.8%), 증상의 가벼움(19.3%)으로 이동의 어려움이 경제적 이유 보다 높게 나타나 이전과 차이를 보임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

(단위: %)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미충족 의료 경험 있음	19.1	17.0	32.4	
미충족 의료 경험 없음	80.9	83.0	67.6	
주된 이유	(경제적인 이유)	58.8	39.2	20.8
	(병의원 등への 예약 어려움)	1.9	0.2	0.7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15.2	25.0	29.8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운영안함)	6.1	-*	-*
	(병의원 등에서의 오랜 기다림)	2.5	0.9	4.3
	(증상의 가벼움)	6.4	6.9	19.3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1.8	1.1	1.1
	(의사소통의 어려움)	4.5	2.5	3.3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0.9	0.9
	(시간이 없어서)		13.7	7.3
	(의료기관 방문시 동행 할 사람이 없음)		7.8	6.8
	(어떤 의료기관에 가야할지 몰라서)		1.0	1.6
	(기타)	2.8	0.6	4.1
	계	100.0	100.0	100.0

주 : 전체 연령

\* 2014년 이후 보기문항 없음, (음영) 2017년에 신설 보기문항

※ 2020년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관련 조사 및 통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은 높게 나타날 수 있음

-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2020년(상반기)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59.1%로 2019년 (68.9%) 동기간에 비해 9.8%p 감소 (보건복지부)
-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명세서 건수 13.3% 감소, 내원일수 12.5% 감소(건강 보험심사평가원)

#### 4 사회적 특성

□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2017년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아짐

○ 생활만족도는 3.2점으로 2017년과 동일하고,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감소함

\* 5점 기준 : 5점 매우 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 2017년 : 생활만족도 3.2점,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3.0점

##### 【 생활 만족도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매우 만족	8.7	7.1	5.0	5.1
약간 만족	44.5	48.5	53.6	50.7
약간 불만족	34.5	33.8	32.6	36.7
매우 불만족	12.3	10.6	8.8	7.6
계	100.0	100.0	100.0	100.0

##### 【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매우 만족	4.3	5.4	4.0	3.6
약간 만족	35.2	37.5	45.3	39.4
약간 불만족	38.7	39.1	38.5	42.1
매우 불만족	21.8	18.0	12.2	15.0
계	100.0	100.0	100.0	100.0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함

-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연령별로는 장애인노인의 인지 비율은 5% 수준으로 낮음

※ 장애인 차별 인식(차별 없음) : 2017년 20.1%, 2014년 27.4%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알고 있음) : 2017년 13.9%, 2014년 8.3%

**【 장애인 차별 인식 】**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별		
		만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없다	36.5	27.2	30.4	42.7
있다	63.5	72.8	69.6	57.3
계	100.0	100.0	100.0	100.0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별		
		만19세 미만	만19-64세	65세 이상
알고 있다	10.5	17.8	15.5	5.4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25.9	24.5	31.0	21.2
알지 못한다	63.6	57.6	53.5	73.4
계	100.0	100.0	100.0	100.0

□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2배 정도 늘어남

- 주 1~3회 외출(32.9%)과 월 1~3회(12.9%)는 증가하여 장애인이 외출 빈도를 줄이고,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임
-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나 '도우미 부재'와 함께 감소 경향을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이외 '교통 불편', '하고 싶지 않아서'는 증가 경향을 보임

【 외출 빈도 】

(단위: %)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이상
거의 매일	67.3	70.1	45.4	62.8	55.2	35.1
주 1-3회	20.3	19.5	32.9	26.1	28.3	37.6
월 1-3회	7.2	5.9	12.9	2.6	9.3	17.0
전혀 외출 않음	5.2	4.5	8.8	8.5	7.2	1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외출하지 않은 이유 】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이상
교통이 불편해서	1.1	-	5.9	5.0	3.0	7.9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0.9	0.6	0.6	0.0	0.6	0.6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60.9	72.7	55.8	27.7	50.4	61.0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 부재	9.8	12.0	9.0	28.3	10.7	6.8
시간이 없어서	0.5	0.5	1.5	0.0	1.4	1.6
하고 싶지 않아서	12.1	7.8	10.8	15.8	15.5	7.5
주위의 시선 때문에	1.9	0.4	1.2	0.0	2.1	0.6
코로나19로 인하여	-*	-*	11.7	17.0	12.3	11.0
기타	12.8	5.9	3.5	6.3	4.0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2017년 보기문항 없음

□ 교통수단 이용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함

○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높음

- 다만, 버스·택시 불편도,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 전용 교통수단 부족의 이유는 2014, 2017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임

【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여부 및 이유 】

(단위: %)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39.8	36.7	39.8	
교통수단 이용시 어렵지 않음	60.2	63.3	60.2	
어려운 이유	(버스·택시가 불편해서)	64.4	64.4	52.6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	14.6	14.6	12.1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	18.3	18.3	17.4
	(자동차 개조 및 운전면허증 확보의 어려움)	0.7	0.7	2.1
	(승차거부 및 심리적 불편함)	- *	- *	5.8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1.1	- **	- **
	(기타)	2.0	2.0	10.0
계	100.0	100.0	100.0	

주: \* 2020년부터 제시된 보기문항 , \*\* 2017년 이후 보기문항 없음

## 5 일상생활 및 돌봄 특성

-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시 도움 필요정도는 장애인의 32.1%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하여 2017년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함. 다만 지원 수준이 높은(거의 남의 도움 필요)경우는 6.2%로 증가함
-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4.1%로 전체 장애인에 비해 높으며, 2017년(장애노인의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비율 37.6%)에 비해서 다소 감소함

###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전체	만 65세 이상	전체	만 65세 이상	전체	만 65세 이상
혼자서 스스로	51.3	44.9	46.9	38.8	47.8	43.8
대부분 혼자서	16.5	18.5	19.2	23.6	20.1	22.0
일부도움 필요	17.7	21.2	19.5	21.7	17.2	18.4
대부분 필요	8.6	8.9	8.9	10.1	8.7	9.4
거의 남의도움 필요	5.9	6.5	5.5	5.8	6.2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생활도우미 등)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3.5%로 2017년에 비해 4.0%p 증가함

###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7.9	9.5	13.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3.1	3.2	6.9
노인 장기요양보험	5.2	5.7	7.0
장애인 생활도우미, 발달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	1.2	3.0

주 : 만 6세 이상

○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았음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도움 제공자인 비율은 18.7%로 2017년 11.5%, 2014년의 11.1%에서 큰 폭으로 증가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

(단위: %)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배우자	37.7	39.4	38.7
부모	20.1	21.1	20.8
자녀(며느리, 사위)	16.7	16.6	13.3
형제·자매	5.1	3.7	2.8
조부모	1.1	0.5	0.4
손자녀	0.5	0.3	0.4
기타 가족	0.3	0.3	0.5
친척	0.8	0.5	0.6
친구	0.8	0.2	0.4
이웃	1.1	1.1	0.2
활동지원사	3.3	2.2	9.1
가정봉사원	0.5	0.6	0.5
요양보호사	7.3	8.7	9.0
간병인	2.0	2.4	1.3
기타	2.7	2.4	2.0
계	100.0	100.0	100.0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용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 수준(현재 도움 충분도)은 낮아진 경향을 보임

- 현재 도움이 충분하다는 비율은 54.9%로 2017년 63.6%에 비해 감소
-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했음에도 돌봄이 불충분하다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 등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도움 충분도 】

(단위: %)

구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충분함	58.9	63.6	54.9	53.8	59.1	51.7
부족함	41.1	36.4	45.1	46.2	40.9	4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⑥ 경제적 특성

-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은 2017년에 비해 하향함
  -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의 38.5%에서 7.9%p 감소함
  - 장애인의 69.4%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일반 가구의 1.8배)로 인식하고, 전체 인구는 60.9%가 자신을 중상층으로 인식하여 상반된 경향을 보임

【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의식 】

(단위: %)

구분	장애인				전체 인구*			
	2011	2014	2017	2020	2013	2015	2017	2019
중상층으로 인식	31.5	32.6	38.5	30.6	59.3	60.3	60.3	60.9
하층으로 인식	68.5	67.4	61.5	69.4	40.7	39.7	39.7	3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전체 인구 - 사회조사 각 년도(통계청).

-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과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경제 구조로 파악됨

<참고>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sup>1)</sup>(통계청)

- (가구소득) 장애인가구 소득을 전국가구와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연평균 4,246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5,924만원)의 71.7%수준임
- 소득분위로는 하위분위(1~2분위)에 장애인가구의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

가구 비중이 높으며,

—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사업·재산소득(76.8%), 공적이전소득<sup>2)</sup>(19.6%), 사적이전소득(3.5%)으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음. 소득원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경향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심화됨

※ 전국가구: 근로·사업·재산소득(90.4%), 공적이전소득(7.7%), 사적이전소득(1.8%)

○ (가구지출) 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보면 식·주거비 44.6%, 기타소비지출 22.1%, 의료비 11.6% 등 으로 전국가구에 비해 의료비 비중이 높음

—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생계·의료 등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음

※ 전국가구: 식·주거비(41.8%), 기타소비지출(24.5%), 교육·보육료(11.5%), 의료비(6.7%) 등

주: 1) (2020년) 전국 18,064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2,021가구

2)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 7 복지서비스 수요

□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남

○ 소득보장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 욕구가 높게 나타나 2017년과 차이를 보임

-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 【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소득보장	38.5	41.0	48.9	28.9	52.9	46.5
의료보장	32.8	27.6	27.9	30.8	22.4	32.8
고용보장	8.5	9.2	3.6	6.5	5.6	1.5
주거보장	6.4	5.1	7.4	5.8	7.8	7.2
이동권 보장	1.8	3.0	1.5	1.0	1.1	2.0
보육·교육 보장	1.7	1.2	0.7	11.9	0.5	0.2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6	1.4	1.4	2.4	1.5	1.1
장애인 인권보장	2.7	2.5	1.9	6.5	2.5	1.1
장애인 인식개선	2.2	2.0	1.5	4.0	1.5	1.4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	1.2	6.0	2.5	1.6	2.3	2.8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참여보장	0.6	0.5	0.3	0.1	0.1	0.4
재난안전관리	0.5	0.3	0.1	0.0	0.1	0.2
기타	0.3	0.2	0.3	0.1	0.2	0.3
없음	1.3	-	2.0	0.5	1.7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27.0%가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9.7%)이 높게 나타남

○ 학령기전 장애아동은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 초등학교 연령대 장애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중학교 연령대 이상 장애아동은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 욕구가 높음

【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

(단위: %)

구 분	2017년도	2020년도	연령별		
			만6세이하	만7-13세	만14-25세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확대	20.8	5.3	13.1	5.6	2.6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19.9	27.0	19.8	34.0	18.4
교육도구나 기자재 사용시 편리성 확보	3.4	4.5	9.4	5.3	1.9
교사의 전문성 확보	9.4	8.7	11.3	7.5	9.7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	12.4	19.7	29.8	18.4	18.6
교사 및 교육기관의 확대	7.4	4.7	8.3	5.4	2.6
학교내 편의시설 확대	2.5	3.9	0.0	2.4	7.1
등하교 편리성 지원	3.8	4.1	6.6	4.0	3.6
교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8.0	5.0	0.0	5.6	5.7
고등교육 지원 강화	3.0	4.1	0.0	0.9	10.2
부모교육 상담 지원 확대	1.1	1.5	0.0	1.3	2.2
교육비 부담 감소	8.4	7.6	1.7	7.9	9.0
기타	-	3.9	0.0	1.6	8.4
계	100.0	100.0	100.0 (0.9만)	100.0 (4.7만)	100.0 (3.1만)

-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3%)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0%)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연령대별로 20대는 '활동지원서비스', 30대는 '출산비 지원', 40대는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연령별		
				만18-29세	만30-39세	만40-49세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6.7	16.0	8.8	12.1	6.2	8.7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	4.4	4.8	2.2	5.2	1.4	1.3
출산비용 지원	9.4	9.1	10.2	4.6	12.7	11.3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11.8	8.0	7.1	3.1	12.2	6.3
산후조리 서비스	8.5	7.2	5.1	0.2	7.1	6.2
육아용품 대여	-	0.2	0.2	0.0	0.0	0.4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16.1	13.2	13.3	9.2	14.4	14.5
자녀교육도우미	8.4	2.4	2.7	4.2	2.2	2.2
가사도우미	9.4	7.5	7.7	8.2	3.2	9.7
활동지원사	5.9	10.1	11.3	16.1	12.4	8.7
건강관리 프로그램	8.9	7.0	10.0	9.4	8.7	10.8
상담서비스(심리·정서)	6.1	8.0	5.3	4.9	5.2	5.5
자조집단(멘토)	3.4	3.2	0.7	0.0	0.0	1.4
학교 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	-*	3.3	4.5	8.8	0.6	4.6
장애를 고려한 여성용품 정보 제공	-**	-**	8.7	9.1	12.4	6.7
기타	1.0	0.1	2.2	4.6	1.3	1.7
계	100.0	100.0	100.0	100.0 (3.5만)	100.0 (3.9만)	100.0 (7.8만)

주 :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기준

\* 2017년에 신설된 보기 문항, \*\* 2020년에 신설된 보기 문항

## 8] 코로나-19

-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으로 나타남

###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

(단위: %)

구분	응답 범주			계
	어려움 없음	다소 어려움	상당히 어려움	
식료품 및 일상용품 구매	57.5	33.3	9.2	100.0
경제활동 (출퇴근, 실직·휴직, 휴업등)	51.6	30.7	17.7	100.0
사회서비스 이용	52.3	34.6	13.1	100.0
의료 이용 (병의원, 약국이용)	48.5	37.9	13.6	100.0
교육 활동 (학교, 학원, 온라인학습)	56.4	32.5	11.0	100.0
외출	39.7	40.4	19.9	100.0
정서적 안정	41.9	42.5	15.5	100.0

- 코로나-19에 따른 추가지원 이용은 '방역물품 지원'이 42.5%로 가장 높고 '온라인 교육을 위한 학습보조기기 지원' 8.7%, '생필품 재가배달' 4.9%,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 지원'이 3.4% 등으로 나타남

### 【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지원 이용 】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별		
		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긴급 돌봄	1.7	12.0	1.6	1.2
장애인활동지원 특별 급여*	3.4	13.9	2.7	-
도시락, 물품 지원 배달	4.9	11.1	4.5	4.9
방역물품 지원	42.5	45.2	40.8	44.0
온라인교육 위한 학습보조기기 지원**	8.7	8.7	-	-
기타	1.7	0.3	1.9	1.7

주 : \* 만6-65세 미만 , \*\* 만6-19세 미만